

투데이 칼럼

‘장수군 가야문화유산’ 조기에 빛을 보게 하자

최근 들어 천오백년 전 장수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고대 가야인들의 삶과 흔적들이 확인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장수가야에 집중되고 있다.

이들이 남긴 유적과 유물의 진정성 있는 가치가 증명된다면 한국의 고대사가 비약적으로 그 역사성은 매우 높고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장수지역은 1993년부터 가야의 존재가 확인되었지만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했다. 고대사에 있어서도 백제의 변방으로 인식되고 가야가 확인된 이후에도 경북 고령에 자리했던 대가야의 영역으로만 인식되어 왔던 것이 현실이다.

최초로 장수군 천천면 삼고리에서 가야의 유적과 유물이 확인되었지만 지역민과 행정의 관심에서 소외되었다. 하지만 장수가야를 학계에 알린 고고학자와 그 제자들을 통해 맥을 이어왔고 이들의 진정성 있는 연구를 통해 그 역사가 확인되고 있다.

반면에 영남지방 가야문화권 지역 특히, 경북고령과 경남김해, 함안은 가야고분의 학술연구와 유적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가사적 지정과 관광자원화를 이뤘으며 이를 통한 관광수입은 물론 세계유산 등재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또한, 가야를 하나의 브랜드화로 정착시켰으며 정·관·학·민이 뫄



류지봉 장수군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뫄 뫄처 한국고대사를 삼국이 아닌 사국시대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금 늦었지만 영남지방의 자원화 과정의 좋은 사례를 배우고 받아들여 장수지역 가야 유적이 빛을 보게 하기 위한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근래에 들어 장수군은 장수가야의 화려한 부활을 꿈꾸며 중앙의 지원이 없이 열악한 재정 속에 적은 예산이지만 학술연구를 실시해오고 있다.

지금까지 영남지방은 고분유적만을 중심으로 발굴조사를 해 왔다면 장수가야는 지표조사를 통해 고분, 제철, 봉수, 산성 유적 등 고대국가 성립될 수 있는 유적지들의 위치를 확인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당시 최고의 하이테크 기술인 철을 생산하던 제철유적의 확인이다. 지표조사를 통해 확인된 약70여개소의 제철유적은 고원산악지대로 인식되었던 장수지역에 강력한 가야세력이 존재하였던 이유에 대해 설명을 충분히

해주고 있다. 그동안 장수가야의 존재이유를 주요 고갯길에 자리한 교통의 중심지로서 설명해 왔으나 그 이유가 조금은 부족했다. 이는 이를 뒷받침해 줄 중요한 이유이다.

또한, 대가야의 변방으로 취급됐던 장수가야는 밀리는 금산에서부터 시작된 봉수의 집결지로 확인되면서 독자적인 세력이 존재하였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최근에는 산성유적의 발굴조사를 통해 흥미로운 사실이 확인되었다. 산성 내부에 자리한 집수정내부에 서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에 이르는 토기들이 확인되었고 이후 인위적으로 폐기된 현상이 확인되었다.

즉, 고려시대 이후의 유물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고려가 가야에서 후백제까지 화려하게 수놓았던 흔적을 철저히 폐기했다는 이야기로 해석될 수 있다. 이후 장수지역의 가야와 후백제는 역사 속에서 찬란함을 뒤로한 채 긴 잠에 빠져들게 되었다. 지금으로부터 천오백년 전

의 이야기이다. 천오백년이란 긴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한 장수가야는 앞으로 펼쳐질 역사이야기가 더욱 흥미롭다. 대경과화관에 공식 기록된 봉수유적의 최초시기보다 오백년이나 앞선 봉수왕궁이 자리하는 곳이 장수가야인 것이다.

이러한 장수가야 학술연구는 작년부터 탄력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가야의 역사가 재조명되면서 각계각층의 활동과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이 이어지면서 금년에는 5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발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금년에는 장수가야의 유적들을 국가사적 등재를 추진하여 기반을 다지고, 각 분야의 유적 연구를 지속하여 진정한 장수가야의 부활의 초석을 마련하는 해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체계적인 종합계획 수립으로 가야 유적의 발굴과 복원, 정비, 활용 사업의 로드맵을 세밀하게 구성하고, 세계유산등재까지 이어져 호남지방 가야 유적지가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부각되는 날이 앞당겨질 거 기대해 본다.

도민을 비롯한 지역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가야 역사를 관심을 갖고 그 열원이 장수지역 가야유적을 가지 있는 문화유산으로 빛을 보게 해야 할 시기는 생각에 장수가야의 후손으로서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며 글을 마무리 하려한다.

독자재언

‘치킨게임이론’ 과 운전에 대한 생각

‘치킨게임이론’이라는 국제정치학 이론이 있다. 두 대의 자동차로 마주 보고 달리다 핸들을 꺾어 피하는 쪽을 치킨, 즉 겁쟁이라 부르는 게임에서 유래됐다. 먼저 피하는 쪽이 겁쟁이로 몰리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이 굴복하기를 기대하면서 위험을 감수하다 죽음을 맞기도 한다. 어쩌면 멋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이성을 가진 사람이 이런 이러한 게임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상대의 양보를 기다리며 갈 때까지 가다가 파국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게임 행태가 국가 사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사례가 많다. 예를 들어 차로를 변경하기 위해 방향지시등을 켜고 들어가고 하면 뒤에 있는 차량은 의도적으로 속도를 올리며 차간 거리를 좁힌다. 내가 절대로 양보하지 않을 테니까, 사고를 경험하기

싫으면 알아서 피해 가던지’라는 무언의 행동이다. 차량이 정체된 구간에서는 먼저 가려고 앞 범퍼를 내민다.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똑같이 진행할 경우 사고가 날 것이 분명함에도 양보는 찾아볼 수 없다. 나는 사고가 나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더 강력하게 들이치는 쪽이 이기는 경우가 나온다. 승자는 기쁨을 만끽하고 패자는 감정이 상하게 된다.

감정적으로 운전을 한다면 양보운전이나 방어운전은 생각하기 쉽지 않다. 작은 접촉사고라도 발생하여 그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손해에 후회하면 이미 늦다. 양보운전과 방어운전은 절대로 도로 위에서의 패자가 아니다. 운전은 절대로 게임이 될 수가 없을 을 명심해야 한다.

이진제 완산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사회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백두산 천지에 발 담근 호주 관광객



호주 관광객이 최근 북한 백두산 천지 물에 발을 담그고 있다. 호주와 노르웨이 관광객들은 이날 뉴질랜드 동반가 로저 세퍼드의 안내로 백두산을 등반하고, 현지에서 캠핑도 했다. 북한이 외국인 관광객의 백두산 등반과 캠핑을 허용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사설

도내 도로들의 노후화 현실

도내 불류 대동맥 노후화가 심각하다는 보도이다. 국도며 지방도며 두루 그렇다는데 참으로 답답한 현실이다. 도로 노후화의 현실을 지켜만 보고 있을 게 아니다. 현재 시설 개량 대상의 도로는 국도가 여덟 구간이고 지방도는 아홉 구간이다. 열악한 재정 형편 때문에 SOC 투자에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 될 게 아니다. 지방도는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서라도 작업을 서둘러야겠다.

전북도는 교통 인프라 확충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영호남 SOC 공동전담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 세월을 기다려선 안된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예대 후속 움직임이 없으니 이상하다. 전북도는 예산에 호기를 기대할 적 없다. 2030년까지 도로 건설과 철도 건설과 항만 건설 등 113건의 사업을 위해 23조 9천여억원을 투입한다고 했던 게 생각나는 것이다. 그것은 구상은 전에 들어보지 못했을 만큼 원대했다. 2030년까지 거의 24조원에 육박한다는 것도 그렇다. 그러나 그게 추진되지 않는다면 맹탕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조심스럽게 지적할 것이 있다. 아쉬운 쪽은 우리 쪽이지 영남쪽이 아니다. 사실이 그렇다.

그러므로 그 추진을 위해서는 전북도가 앞서서 나가야 한다. 도민을 상대로 청사진을 그려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예산 확보이다. 현 정부의 국토부가 전인 정부의 국토부하고는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그대로 촉구할 것은 촉구해야 한다. 행여 전인 정부의 그것을 그대로 답답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인 정부 때 국토부의 57개년 계획을 보고서 불만을 말했었는데 그것은 지금 돌아보아도 정당하다. 전북 류의 고속도로 건설이 전국 대비 13%에 불과했으니 말이다. 그리고 무주와 대구간 건설권은 언급조차 없음에도 경북과 경남권은 고속도로 건설 것이 무려 일곱 건이었으니 말이다.

전북도는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세계 캠퍼리 대회 성공 프로젝트는 정부를 향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유가 된다. 도내 도로들의 노후화가 오래됐는데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전북도는 도로 정비와 SOC 확충과 관련해 그 책임이 막중하다. 정부가 이쪽의 형편에 눈길을 돌리도록 전북도가 더욱 뛰어야겠다.

여름철 전북의 고용시장이 얼어붙었다

우리 지역의 고용 시장이 얼어붙었다. 취업자 현황을 보면 지난해와 비교해 부쩍 제미니스름 가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실업자가 6천여 명이 늘어났다. 고용지수가 늘어난 분야라고 격려했는데 그게 기우가 아니었던 것이다. 실업자가 2만 명을 훨씬 넘는 채로 7개월째 계속 악화 상태로 있다. 역사나 고용률이 전국에서 최악이라는 충격이 너무 커질까봐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전북도는 이 부끄러운 기록을 과연 언제까지 고수할 것인가. 오리라 예전보다 못한 최악의 성적표 앞에서 무수 생 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우리 지역의 고용 상황을 보면 답답할 뿐이다. 이례서는 곤란하다. 전북도는 먼저 숨쉬수월하는 자제로 지역 인제 고용의 사례를 많이 보여 주어야겠다. 지역의 청년 고용 열기가 아직도 미지근하기에 하는 말이다. 지역의 고용열기가 미지근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위험위기 이후 청년실업률이 가장 높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감이 둔한 탓이다. 청년 취업률이 미미한데도 어떻게 끌어 올려 보려는 움직임이 없으니 무슨 이유로 그러는지 알 수가 없다. 전북도는 스스로 그 꿈을 보이는 가운데 각 시군 지자체를 독려해 고용 열기를 뜨겁게 해야 한다.

전북도는 내저 숨쉬수월하는 자제로 지역 인제 고용의 사례를 많이 보여 주어야겠다. 지역의 청년 고용 열기가 아직도 미지근하기에 하는 말이다. 지역의 고용열기가 미지근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위험위기 이후 청년실업률이 가장 높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감이 둔한 탓이다. 청년 취업률이 미미한데도 어떻게 끌어 올려 보려는 움직임이 없으니 무슨 이유로 그러는지 알 수가 없다. 전북도는 스스로 그 꿈을 보이는 가운데 각 시군 지자체를 독려해 고용 열기를 뜨겁게 해야 한다.

전북도는 비정규 일자리를 두고 불안해 하는 젊은이들을 생각해야 한다. 다시 또 말하거니와 청년 고용은 한두 번 시도해보고 그만 둘 게 아니다. 일자리 창출이 청년 고용은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의 진정성이 관건이다. 그리고 공공기업의 협조도 필수적이다. 권력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을 거처를 옮기고 있는 세월이 그 앞다 계속되어야 하는가. 전북도는 실업률 전국 1위의 부끄러운 성적표 앞에서 머리를 쥐고 생각이 많아야겠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